

# “질병치료에 매진하는 숭고한 의과학자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더프레임스튜디오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정몽준)은 지난 3월 19일 오후 5시 30분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제13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이원재(53)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임상의학부문 이재원(63) 울산대 의대 흉부외과학교실 교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제13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에서 인사말 하는 모습.

에게 각각 3억 원,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주영석(38)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와 이용호(40) 연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에게 각각 5천만 원 등 4명에게 총 7억 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아산의학상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낸 국내외 의과학자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2007년에 제정됐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이원재 교수는 장내 미생물 분야가 주목받기 전인 2000년 초반부터 장내 미생물들의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로 질병 치료와, 영양실조에 의한 저성장증 어린이 성장촉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상의학부문 수상자인 이재원 교수는 상처는 작고 회복은 빠른 최소 침습 심장수술법을 개발하고, 로봇 심장수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심장질환 치료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만 40세 이하의 의과학자에게 주어지는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주영석 교수는 암 발생 유전체의 구조 및 발생 기전을 규명

했으며, 이용호 교수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과 관련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새로운 위험인자를 규명하고 치료 및 예방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용호 교수는 지난 1월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벡 노화연구소에서 2년 예정으로 연수중이어서 부친(이현철 · 71 · 전 연

세의대 교수)이 대신 수상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버님께서는 평소 ‘의학이라는 학문과 의술은 참으로 무한하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자체도 한이 없다. 숭고한 정신을 한없이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의료계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에 매진하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수상자 네 분의 훌륭한 업적들은 우리나라 의과학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다.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자세는 많은 의과학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겠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아산재단은 국내 의과학계 발전을 위해 2011년 조성한 아산의학발전기금을 2017년 4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아산의학상 시상 및 수상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300여 명의 수상자와 가족, 동료 의과학자가 참석하는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던 아산재단은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상자 부부만 초청해 진행했다. 📷